

비망록

문정희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가난한 식사 앞에서
기도를 하고
밤이면 고요히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구겨진 속옷을 내보이듯
매양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내 가슴에 아직도
눈에 익은 별처럼 박혀 있고

나는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서
이렇게 한 생애를 허둥거린다

잊지 말아야 할 것들

20160042 구인용

드디어 종강이다. 엄밀히는 본 에세이를 끝으로 마침내, 결국, 종강이다. 시험도 끝났겠다, 동아리와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근 며칠을 즐겁게 놀고 알코올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한 학기를 되돌아본다. 펍 나쁘지 않았다. 여느 때처럼 버겁고 힘들었지만, 꽤 좋은 기억들이 간간히 박혀 있었다. 적지 않은 부담이었던 한국시 다시 읽기 수업도, 제출한 에세이들을 읽어보면 나름 애뜻한 마음이 든다. 2017년을 보름 정도 남긴 지금, 시인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았던 노력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한 해를 정리하고자 한다.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시 한 편. 사실 속으로는 한 편의 시를 이미 정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시의 ‘품격’을 볼 것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웬지 망설여져, ‘잘 쓴 시’를 조금 더 찾아보기로 했다. 가장 애뜻하게 읽었던 기형도의 시집을 한 번 더 들춰보고, 문학의 프락 선배에게 선물 받았던 심보선의 시집도 한참 읽어보았다. ‘형도 형’의 시는 언제나처럼 좋았지만, 당시의 에세이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미 감상을 충분히 풀었다고 생각한다. 심보선의 시는 좋은 것이 많았다. ‘가끔 슬픔 없이 심오 초가 지난다’ (‘슬픔이 없는 심오초’, 심보선)’처럼 울컥하게 다가오는 강렬한 표현도 있었고, ‘아무래도 휘저어도 끝내 제자리로 돌아오는 / 이를테면 수저 자국이 서서히 사라지는 흰 죽 같은 것’ (‘식후에 이별하다’, 심보선)’처럼 끝내주는 비유도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의미가 점 찍어 뒀던 시보다는 적어서 고심 끝에 원래 생각했던 시를 다루기로 했다. 바로 문정희의 “비망록”이라는 작품이다.

비망록.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본 에세이에선 시와 더불어 올 한 해에 대한 감상을 정리하며 나만의 비망록을 작성해보고자 한다. 두 개의 키워드가 떠올랐다. 시, 그리고 사랑. 공대생과 어울리는 두 단어는 아니지만 부끄럽게도 나의 2017년을 정의하는 두 단어는, 말하자면 올해 내가 느낀 ‘삶이란’ 사랑이고 시였다. 한없이 이어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랑과 시에 대한 담론을 “비망록”과 연관 지어 짧게 펼쳐본다.

1. 사랑할 것

2016년 여름, 서울. 아르바이트를 가다가 지하철 스크린도어에서 마주친 이 작품은 첫 연, 아니 첫 행부터 나를 사로잡았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남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 스스럼없는 사람이고 싶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 행복하길 바랐다.

첫 문장부터 내 이야기 같기에 그 연을 마저 읽었는데, 주저앉을 뻔했다.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 되고 말았다’. 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 이야기였다. 이렇게 깊은 비밀을 첫 연부터 털어놓는 시인이 원망스러울 정도였다. 고백하자면, 나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사랑받는 사람이고 싶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 행복해서, 다시 그들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랐다.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남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내가 취한 전략은 먼저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혹은 덕분에) 사람들은 내가 사랑이 많고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는 자존감 높은 사람처럼 보았지만, 사실 그것은 나에게는 다른 내세울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금은 자신의 강점을 몇 개 찾았으나, 그것 역시 남들에게 유용하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나는 남에게 헌신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금 소중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를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헌신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가끔씩 나의 깊은 진심을 엿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송고한 이타성을 추구하는 겉모습 이면의 결핍에 가까운 욕구를 발견하는 사람들. 사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것을 고백하기가 너무 부끄러웠다. 그리고 그것을 느꼈을 때 그냥 사랑을 주면 될 것을, 그 사람들은 그것을 파헤쳐서 결국 내가 이기적인 사람임을 인정하게 만들곤 했다. 그들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었다.

나는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고고함을 유지하기 위해 내쳤던 사람들이 이따금 ‘돌처럼’ 아프다.

2연에서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시의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아’라며 말문을 뗀다. 나는 김광진 의 “편지”를 부를 때마다 음정이 나갈 정도로 울컥하곤 하는데, 언제나 ‘오 사랑한 사람이여’ 가사 부분이 고비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언제나 미안함과 고마움이 결부되는데, 그 사람을 떠나 보낸 뒤에는 미처 해소하지 못한 감정들이 그를 떠올릴 때마다 무겁게 얹히는 것 같다. 어떤 이름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부를 때마다 목이 메인다.

시에 등장하는 ‘사람’도 뒤에 나오는 ‘아직도’ 같은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화자를 떠난 사람이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너무나도 서정적이면서도 담백하다. ‘사랑하는 사람아 / 너는 내 가슴에 아직도 / 눈에 익은 별처럼 박혀 있고 // 나는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서 / 이렇게 한 생애를 허둥거린다’ 아, 모든 단어가 불가결하다. 그냥 별도 아니고 ‘눈에 익은 별’이라고 수식한 것도 좋고, ‘돌처럼 아프다’는 비유도 좋다. ‘허둥거린다’는 단어는 어떻게 온 것일까. 보통은 ‘헤매인다’, ‘괴로워한다’ 같은 표현을 쓸 텐데 말이다. 그래도 역시 제일 좋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아’라는 현재형 표현이다.

비망록이란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해두는 것’이니 만큼, 보통 우리가 쉬이 잊고 사는 것, 또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다짐 등을 적는다. 하지만 별처럼 박혀 있는 사람이 잊힐 리가 없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도 아픈, 사랑하는 사람을 비망록에 적는 것일까. 그 이유를 생각하다가 비망록의 정의를 다시 내렸다. 비망록은 ‘잊고 싶지 않은 것들’을 적는 것이다. 비록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플지라도, 뼈 아픈 고백일지라도 잊고 싶지 않은 이유는 분명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그것을 생각하며 다시 시를 읽으니 새로운 감동이 들었다.

2. 시를 알아갈 것

‘초등학교 때 배웠다. / ‘다’는 도, ‘라’는 레... / 나는 시였다.’

학내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1800개의 좋아요를 받은 시의 첫 연이다. 본인을 ‘시’였다고 선언하는 오만한 작자는 부끄럽지만, 필자 본인이다. 사실 “인용구”라는 이름의 개인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틈틈이 글을 올리고 있다. 이 글 역시 그 사이트에 올린 것 중 하나였는데, 한 친구가 제보 형태로 공유한 이 글이 기대보다 큰 호응을 받아 조금 글쓰기에 자신감이 붙었다. ‘쓰다. 적다. 부정적인 표현을 빼기 위해 시를 짓다.’, ‘외로움에 기억이 더해진다면 괴로움이 되는 것이었다.’ 같이 중의적인 표현으로 점철하며 랩 가사를 쓰듯이 재미 삼아 썼던 글이라 속으로는 졸작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이 좋게 읽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문정희의 “비망록”에 대한 감상으로도 시 한 편을 쓴 적이 있다. 문정희의 시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이유는 아마 앞선 고백 때문 - 남보다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매양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 일 것이다. 나를 떠나간 사랑의 이유를 찾다가 적은 첫 연은 다음과 같다. ‘“너는 사랑 하였을지 모르나 / 나는 사랑 받지 아니하였다”’ 당시 연인의 마지막 말이었다. 내 판에는 그녀를 열심히 사랑했다고 생각했으나, 그녀는 나로 인해 많이 섭섭했고,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이 자주 들었다고 했다. 죽고 싶었다. 나름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는 데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사랑으로 정의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게 가슴이 아팠다. 한편으로는 내가 건넸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 역시 슬펐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를 적고, 글을 이렇게 마쳤다. ‘여기, 사랑을 사랑하여 /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결국 ‘나를 사랑하여 너를 사랑하지 못하였던’과 같은 말지만, 부끄러운 고백을 차마 시에 직접 담을 수는 없었다. 그 사람이 좋았던 것보다도 사랑을 하는 내가 좋았던 것 같다. 그것을 인정하고 글로 적으니 한편으론 후련했다.

글은 어떤 경험에 개인의 주관적인 감상이 덧칠해진 고유한 기록이다. 다시 말해 한 편의 글을 완성한다는 것은, 하나의 생각을 정리한다는 뜻이었다. 그렇기에 모든 글은, 그것이 초등학교생의 그림일기 일지라도, 의미가 있다. 글을 쓰는 것, 나아가 시를 짓는 것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던 내가 어느새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기쁨이 되었다. 그래서 시를 더 잘 쓰고 싶다는 생각, 글을 평가하는 안목을 기르고 싶다는 생각도 부쩍 늘었다.

‘잘 쓴 시’는 분명 존재한다. 문학의 프락 활동을 하면서, 또 이번 학기 한국시 다시 읽기 수업을 통해 제법 많은 시를 읽어보면서 그런 것을 확실히 느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잘 쓴 시’와, ‘좋은 시’는 또 별

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잘 쓰인 시일지라도 독자에게는 어떤 감동이나 공감도 주지 않는다면, 수려한 글이 아니어도 누군가에게는 ‘전율을 일으킬 정도’의 강렬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사실 선정한 시, 문정희의 “비망록”이 그렇게 빼어난 걸작은 되지 않는다. 별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고, 다소 직접적으로 감정을 다룬다. 신선한 비유나 발칙한 실험이 담겨 있지도 않다. 시의 ‘품격’을 고려한다는 말씀에 잠시 우려를 품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망록”이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담백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알지 않은 철학과 삶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드러난다. 적어도 작가에게는 꽤 큰 위로가 되는 글이었을 것이며, 나는 그 절제된 표현에 충분히 감동했다. 문정희의 시가 “잘 쓴 시”인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좋은 시”임은 분명하다고 확신한다.

중간고사 대체 에세이에서 ‘시, 세상, 은유다’라고 적으며 세상도 결국 한 편의 시라고 주장을 펼쳤었다. 요즘 느끼는 거지만, 새삼 “좋은 시”들을 많이 발견한다.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구절들이 어느새 공감의 형태로 다가오곤 한다. 산다는 것이 그런 것 같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를 이해하는 것. 주변에서 보이는 여러 것들의 알레고리를 발견하는 것. 감정과 관념을 나의 어휘로 재정의해보는 것. 그렇게 나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산다는 것은 시를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3. 살아갈 것

삶은 사랑함의 줄임말, 또는 시를 읽는 줄임말. 올 한 해 나는 ‘사랑’이라는 말을 몇 번 썼는지, 또 몇 편의 시를 읽고 썼는지. 시와 사랑은 2017년 한 해를 지배하는 것들이었다. 제법 만족스러웠다. 주위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글을 쓰며 전체적으로 꽤 건강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다.

그런데 어떤 하루는 참을 수 없는 우울함이 닥쳐왔다. 우울함은 이유도,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 너저분한 책상과 냄새나는 빨래들, 언제나 거기 있던 것들을 새삼 인지하게 되는 순간들. 사랑이나 시 같은 낭만 따위를 논하기엔 너무나도 추레한 나의 삶이 괴로웠다. 스스로가 ‘구겨진 속옷’ 같았다. ‘나는 내 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를 바랐다. 이야기 속 인물처럼, 기억 속의 단편처럼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는 있지만 실체는 없는 어떤 관념으로 남고 싶었다. 인용구만 남고 구인용이 지워지길 바랐다. 다시 말해, 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외모와 목소리가 너무 미워 폭 숨어 입도 열지 않고 하루를 살다가, 하다못해 체취까지 견딜 수 없어 식사를 바라며 한참 동안 사위를 했다.

그런 날은 더 슬픈 생각을 하며 버텼다.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잊히는 것이니까. 적어도 살아서 계속 소통하는 동안에는 잊힐 일은 없으니까. 살아야 한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시를 쓰고, 정을 나누어야 한다. 그런 의무감으로 견뎌왔던 날들도 있었다. 그런 며칠이 반복되다 보니, 또 어느새 나는 괜찮아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삶이라는 것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날씨처럼 좋은 순간과 힘든 순간이 반복되는구나. 그러니 가장 힘든 순간에도 나는 살고자 해야 한다. 사람과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집중하고, 혼자 있을 때는 글을 쓰는데 집중하며 악착같이 살고자 하면 또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았다. 낭만은 언제나 나의 종교였으니, 그것에 의지하며 버티면 되는 일이다. 살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올 테니까.

요즘 나는, 잘 지낸다. 이번 학기 동안 시집을 돌려 읽던 한 친구와 연애를 시작했다. 나의 외모와 목소리, 냄새 마저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그 사람 때문에 참 살만 하다. 적어도 교제를 시작한 뒤로, 우울이 들어설 틈이 없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는 거라고 했다. 연인의 감정으로 누군가를 대해본 것이 별로 없어 서투르고 부족하지만, 그 사람이 ‘사랑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미련 없도록 사랑을 주고 싶다. 이 소중한 행복한 시간들을 시로써 기록하고 싶다. 매일매일 살아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 요즘이다.

그러니 오늘의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2018년의 나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 세 가지: 온 맘으로 사랑할 것. 시를 향유하며 알아갈 것. 그리고 매 순간 진심으로 살고자 할 것.

내년도 올해만 같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